시 론

대학 수능을 치른 그대들에게

김 선 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며칠 전,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갇혀있던 울타리에서 벗어난 해방감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영화 관람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우리 세대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경험컨대, 수능 준비 내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수능시험이 끝나니 그 많던 잠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것은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맘껏 즐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부모님께서도 나무라진 않으실 것입니다. 요즘 수험표 한 장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겠더군요.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 '수험생 특별 할인'이라는 문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곧 받아보게 될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와 다가올 대학 입시에 마음의 짓누름도 없잖을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이라면 그 같은 불안감은 당연한 일이지요.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라면 아마 가채점을 해봤을 테지요. 채점 결과 만족할만한 성적을 얻은 학생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천하를 얻은 듯한 기쁨에 들떠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마치 전장에서의 패장 같은 기분으로 낙담에 빠져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수능 시험이 인생의 항로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학능력 시험 결과 여부를 떠나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미 수능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도 던져졌습니다. 지금은 수능시험 점수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각 대학의 입시설명회가 줄을 잇고 있으며, 학원가에서는 논술·면접시험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입시전략을 짜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유용한 시간입니다.

사회라는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보다 더 어렵고 험난한 시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고교 생활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학과 사회생활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시작할 삶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대들이 생각하는 사회집단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기에 배려해 줄 것이란 생각은 아예 접어두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힘찬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올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를 대표해서 힘찬 격려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한없이 응원할 것입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입니다.

기 고

광주는 큰 정치인을 키우지 않는다

김 미 남
前 청와대 행정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해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 또는 급변 사태에 의해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특정 지방 단위의 정치적, 행정적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큰 정치인이라 함은 다른 일반 정치인과 비교해 그 정도가 더한 상태의 정치인을 말한다.

광주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큰 정치인으로 키워냈다. 이 지역 호남 출신도 아닌 영남 출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지역이다. 작금에 이르러 정치인은 많지만 큰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로 광주지역만의 잘못된 특성이 있다. 큰 정치인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서 인물을 키우는 일에 등한시한다.

이제는 광주도 큰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

이전처럼 자꾸 바꾸다 보면 광주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초선 국회의원과 시장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묵묵하게 기다리며 응원하자. 시정과 의정활동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재선에 오르게 하자. 이후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소임을 더욱 충실히 잘한다면, 3선 의원도 만들어 큰 정치인으로 키워보자.

광주시장은 10대 박광태 시장의 재선이 마지막이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0년 이후 강운태, 윤장현, 이용섭 시장을 거쳐, 현재 14대(2022년~) 강기정 시장 이전까지 재선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8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21대에서는 송갑석(서구갑) 의원만이 재선 이상 의원이다. 이어 22대는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유일한 재선일 뿐 모두 초선이다.

초선 국회의원과 다선의 차이는 매우 크다.

중앙 정부의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우 곤혹스럽다. 매년 예산 확보 계절이 돌아오면 가장 절실한 도움 중 하나가 국회 권력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절대 맹주인 민주당의 텃밭과 심장부라 불린다.

최근 10년 간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21대 양향자(서구을) 의원이 유일하다. 22대 국회에 진입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다. 호남 정치 복원의 시험무대라 볼 수 있는 올해 8·18 전당대회에,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출마를 했지만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광주 정치의 위상도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호남 정치의 위상을 높여줄 정치인이 없다는 현실도 안타깝다.

지역 정치의 한계와 변방화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한계이자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하고 광주는 점차 지역 특유의 역동성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자기 위안'과 함께, 이 지역의 인사들이 대거 정부와 정치권에 충원됐다. 이 같은 정치적 욕구, 간절함, 지역민들의 '연대의식' 등이 저하된 데서 비롯됐다고 보는 정치학자의 분석도 있다. 과거는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광주가 큰 정치인을 키우는데 공을 들여보자. 두 분의 전직 대통령처럼 신념과 정치적 식견은 물론 지도력이 탁월한 힘 있는 큰 정치인을 말이다.

독자투고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 아닌 '상황별 대응' 필요

윤 희 성

2023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의 총 가구 수는 약 2천272만8천 가구이며, 이 중 1천263만2천 호인 64.6%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지난해 주택화재 4천868건 중 아파트 화재는 61.5%를 차지하며 하루 평균 8건, 3시간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집은 안전하다'는 막연한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고를 준다.

특히 아파트는 구조적 특성상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올바른 대피 요령 숙지가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화재 발생 시 지상층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강조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다수 층이 연소된 사례는 1.4%에 불과하며, 대부분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지상층이나 옥상으로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새로운 피난 행동 요령이 강조되고 있다.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동거인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젖은 수건이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린 뒤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한다. 현관이 화염에 휩싸인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을 활용하거나, 방이나 화장실로 이동해 문을 닫고 틈새를 막아야 한다.

다른 세대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택에 화염이나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자택에서 대기하며 119에 신고한 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반대로 화염과 연기가 자택으로 유입된다면 대피가 가능한지 확인 후 이동하되, 불가능할 경우 안전한 방으로 대피해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화재는 다수의 세대가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예방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가족과 함께 대피 계획을 논의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상황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안전한 일상 속에서도 위험을 대비하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소방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시장 공공기관 간담회 '질문 제한'은 시대 역행

광주시가 올해 2월부터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돌며 '강기정 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질문을 제한했다. 관치시대 후진 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광주시가 총괄 부서인 전략추진단장을 문책성 인사로 교체했지만 비판 여론이 누그러들지 의문이다.

간담회는 강 시장과 직원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혁신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이른바 '주의사항'이 전달되면서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말았다. 광주시는 앞서 2곳에서 마무리된 행사에서 나온 발언과 분위기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연고 프로축구단 광주FC, 무등산, 육아 관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로 적시했고, 증원과 보수, 청사 이전 등 건의 사항은 일정이 끝난 뒤 별도로 취합해 보고한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강 시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전 검토 안 된 내용'도 포함됐다. 듣고 싶은 단소리만 하라는 식이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목적의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었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강 시장이 불편해 할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사전에 막았다. 현재 화두인 초저출산 현상과 관련한 육아 문제, 광주의 어머니산인 무등산을 거론해선 안 된다고 했다.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라고 하겠다.

시민단체는 후진 행정이자 자치와 분권,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지방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일방적 주의사항 전달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국정 운영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성토했다. 광주시는 담당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나눈 대화 수준이라고 했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쓴소리를 막는 시장을 공직자들은 믿고 따르지 못할 것이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게 뻔하다.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고민해야 한다. 광주시 공공기관 간담회를 둘러싼 통제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선 지중화 속도 대불산단 조선업 도약의 계기로

영암 대불국가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기계 중심의 일반산단이었지만 대형선박 블록이나 철 구조물 등 조선해양 기자재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블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전신주를 만나면 전선을 절단하거나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과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 블록 차량이 변전기와 충돌해 산단에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전국 이슈가 되면서 전봇대 일부가 제거되기도 했으나 전남도의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에 사활을 건 이유다. '규제의 상징'으로 지적받아온 전봇대가 추가로 뽑히게 됐다.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에서 대불산단 2단계가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포함된 곳은 13개 구간 1.675㎞로, 사업비는 65억원이다. 지난해까지 합하면 총 20개 구간, 4.266㎞에 178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대불산업단지는 넓은 공장 면적과 산단 내 8차선 도로, 인접한 대불항, 많은 숙련 인력 등 블록 생산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형선박 메가 블록 등 제조·운송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 조선산업 다각화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전선 지중화 외에도 자동화·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영암군, 경영자협의회가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 2025년 사업이 마지막인 전선 지중화 공모의 지속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는데,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대불산단은 국내 유일 중소형 선박 블록, 기자재 생산 핵심기지다. 기업 입장에서도 앓던 이가 빠지는 일이다. 조선업 호황의 기회 요인을 극대화해야 하겠다. 전봇대가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전남도가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아침을 여는 詩

屋 -집옥

송정란

중앙선 완행열차 소백 죽령 똬리굴 시름시름 넘어가면,
구덩이마다 소금 세 말씩 들어부은 건장한 대들보가 떠받치던 열두 칸 기와집, 노름빚 술빚에 몰려 튼실하게 출렁이던 골기와 벗겨 팔아먹은, 돌담 안 탱자나무 마른 가시 무성히 돋아 늙은 식솔 쓰린 가슴 남부끄러이 찔러대던, 야반도주 흉흉한 소문 먼지바람 일으키며 안마당 질러가고 쇠문고리 탄식하여 절거덕 홀로 녹슬어가던,
청량리 역 광장 모퉁이 퀴퀴한 누옥 한 채, 빗물 젖은 골판지 아래 잠든 뭄뚱이 누군가 보았다지요

(시조집 '象', 고요아침, 2024)

[시의 눈]

60년대 말 난 청량리 큰댁에 머물렀지요. 말이 집이지 루핑지붕에다 비 샌 틈을 골판지로 덧댄 산동네 거적 누옥이었습니다. 여섯 식구 단칸방에 염치없이 끼여 일년쯤 버텼네요. '무던한 놈'이라, 큰아버지 농에도 무덤덤했지요. 노름빚대에 시골집을 넘기고 풍선단 돈을 찾아 이 산동네로 왔는데, 나마저 꼽살이 끼니 눈치를 받을 밖에요. 난 밥값으로 새벽마다 물지게를 지고 산 아래에 가 물을 받아오곤 했지요. 빙판길을 기우뚱거리며 오르다 몸살을 앓고 큰형마저 세상을 떠 그해 대입시를 망쳤습니다. 이후 고향에 와 농사를 거들었지요. 우리집은 초가에 방 두 개, 그 하나를 내가 썼더랬습니다. 아버지가 광으로 쓰던 방을 수리해 공부방으로 해주셨거든요. 그 누옥에서 난 문학과 혁명을 동시에 꿈꾸었습니다. 밤엔 쥐의 운동장이 된 천정을 밀대로 쑤시며 탈출만이 최대 비의(秘意)이듯 벽에 가득가득 시를 써 붙이고 읽었더랬습니다. 쥐오줌 내 나는 가난한 그 방은 형형한 시옥(詩屋)이었던 셈이지요. 송정란 시인은 경북 영주에서 나, 경기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1990년 '월간문학'에 시, 200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로 등단했습니다. 시조집 '허튼층 쌓기'(2003), 시집 '불의 시집'(1994), '火木'(1998)을 펴냈습니다. 그는 상징과 비유를 단순 언어기교가 아닌, 대상에의 역사적 반추와 미래적 상상까지 천착하는 그 탐구의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